

KSPM-193

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10년 간 비만도 변화

Trend in Body Mass Index at A Rural Korean Community: 1990-1999

김유미<sup>1)</sup>, 김미경<sup>1)</sup>, 최보율<sup>1)</sup>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10년 간에 걸친 비만도의 변화와 그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조사대상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규명 목적의 코호트 구축을 위해 수행된 기반조사(90년, 94년, 96년, 98년, 99년)에 참여한 지역주민 중 1,8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준화된 지침서에 따라 훈련된 조사원이 설문조사와 검진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직업 등을 조사하였고, 생활습관 요인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량 등을 조사하였다. 검진조사로 키와 몸무게를 WHO MONICA manual에 따라 측정하여 체지방지수(Body Mass Index: Kg/m<sup>2</sup>)를 계산하였다. 체지방지수는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에 따라 23Kg/m<sup>2</sup> 이상을 과체중, 25Kg/m<sup>2</sup>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흡연, 음주, 신체활동도에 대해 체지방지수, 비만의 분포를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one way ANOVA를 통해 검정하였다. 연령, 성별, 흡연력, 신체활동을 보정한 연도별 비만도의 평균비교에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8.2를 사용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의 평균연령은 55.0±14.7세(M±SD)였고, 성별분포는 남성 813명(44.3%), 여성 1,022명(55.7%)이었다. 학력수준은 무학 521명(29.2%), 초졸이상 505명(28.3%), 중졸이상 292(16.4%), 고졸이상 466명(26.1%)였고, 직업은 농업이 988명(63.8%), 주부 388명(25.0%), 판매·서비스직 45명(2.9%), 사무·행정직 81명(5.2%), 기타(무직, 학생, 군인) 212명(3.0%)였다. 흡연자는 392명(21.9%)였고, 음주자는 706명(39.5%)였다. 신체활동량은 평균 2497.05±812.84Kcal/D였다. 전체 인구에서 과체중은 331명(21.4%), 비만은 466명(30.1%)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만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인 성별, 연령, 흡연력, 신체활동량을 보정한 체지방지수의 평균은 1990년 22.71Kg/m<sup>2</sup>, 1994년 23.56Kg/m<sup>2</sup>, 1996년 23.21Kg/m<sup>2</sup>, 1998년 23.08Kg/m<sup>2</sup>, 1999년 24.23Kg/m<sup>2</sup>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 추가 분석 예정

KSPM-209

노인 인구에서 흡연과 대장직장암 발생 위험간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코호트 연구

Smoking History and Risk of Colorectal Cancer in the Elderly: A Cohort Study

김화정<sup>1)</sup>, 김선하<sup>1)</sup>, 최남경<sup>1)</sup>, 이승미<sup>1)</sup>, 박병주<sup>1)</sup>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대장직장암은 한국의 경우 특히 65세 이상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이 대장직장암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는 아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습관과 대장직장암 발생과의 관련성 및 인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은 1993-1998년의 부산지역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65세 이상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이루어진 한국 노인약물역학코호트의 구성원으로서 코호트 진입 당시의 흡연 정보가 있으면서 대장직장암의 기왕력이 없는 14,673명의 노인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10.3년이었다. 흡연과 가중한 교란변수들에 대한 정보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평가된 노인 생활습관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조사하였다. 1993-2001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장직장암의 병명으로 진료비가 청구된 코호트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병원방문 의무기록조사를 시행하여 대장직장암 발생여부를 확증하고, 중앙암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대장직장암 발생례를 확정하였다. 통계청 사망자료를 통해 대장직장암으로 사망한 례를 확인하였고 기반조사에서 개개인의 추적기간 내에 발생한 대장직장암을 보고한 예들을 파악하였다.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연령, 성별, 음주습관, 식생활습관, 그리고 육체적 활동도를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보정한 후 흡연여부 및 평균 흡연량, 흡연기간, 총흡연량과 대장직장암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총 151,514인년 동안에 106명의 대장직장암이 발생하여 총 대장직장암의 평균발생률은 대장직장암의 평균발생률은 10만 인년당 70명(95% 신뢰구간, 57-83)이었다. 대장암의 발생률은 10만 인년당 37명(95% 신뢰구간, 27-47), 직장암의 발생률은 10만 인년당 31명(95% 신뢰구간, 22-40)이었다. 성별에 따른 총 대장직장암의 평균 발생률은 남자와 여자에서 각각 10만 인년당 97명(95% 신뢰구간, 71-125)와 10만 인년당 56명(95% 신뢰구간, 41-70)이었다. 코호트 진입 당시의 흡연습관에 비교위험도는 과거흡연군과 현재흡연군에서 각각 1.52(95% 신뢰구간, 0.72-3.20)와 1.53(95% 신뢰구간, 0.55-4.28)이었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대상자들의 흡연량이 유사하여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다. 흡연기간에 따라서는 매년 1%의 위험이 증가하며, 특히 60년 이상 흡연 시에 그 위험이 금연자군에 비하여 비교위험도가 11.04(95% 신뢰구간, 1.27-95.73)이었다. 총 흡연량에 대하여서도 1갑년 증가 시 대장직장암의 위험도가 25%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흡연은 대장직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용량반응 관계를 보이는 바, 흡연량을 줄이고 흡연기간을 줄임으로써 대장직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므로 예방대책 수립 시에 고려되어야 한다.